

초등학생의 거주지별 학업성적 및 도농간 학업성적의 성별 차이 분석

이 순 주 (Lee, Soon-joo)*
(E-mail : soonjoolee@hanbat.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6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2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3일

* 학위취득대학 : Moscow State University
현직: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초등학생의 거주지별 학업성적 및 도농간 학업성적의 성별 차이 분석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와 도농간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거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에 대한 분석결과 중 특히 주의를 끄는 부분은 바로 5학년 일부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로 높다고 한 과거의 분석 결과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업성적의 점수대별 분포를 거주지별로 비교한 결과, 농촌 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평균점수가 50점대 이하에 속하는 학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를 나타내는 학생 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르러서는 80점 이상의 점수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학생 분포를 나타내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있어 성차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학년에 따라 그 양상도 변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녀 간 학업성적의 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학업성적, 거주지역, 성차,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분포

I. 서론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지역차가 학업성적 결정에 영향 미친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 문제와 학군 문제, 농어촌 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현상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의 지역 문제를 안으며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사회문제로 인한 애로를 겪게 되었다. 이용만과 이용대(1985)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40%)가 교육에 있다고 하고 대도시로 전입하는 가구 중 33.1%가 자녀 교육문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종희 1988).

이러한 일련의 사회 현상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 결과(김병성 1981; 박찬선·주경식 2007)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매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농촌으로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자의 수는 두드러지게 많으며 이 지역 학생의 기초학력 또한 도시에 비해 현격히 떨어져진다고 한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학생들이 모든 학년과 모든 과목에서 시골 지역 학생들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학업성적의 차는 학년별 및 과목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 일부 교과외의 경우엔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도농 간 학력 격차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시골 지역 학생의 학업성적이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시골 지역 우수학생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교사의 기대 수준,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열의, 방과 후 보충학습의 여건, 학생 간 경쟁 등이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낮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05.01.18).

이렇듯 도농 간 학력 격차 현상은 비교적 많은 연구를 통해 지역차와 학업성적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증명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문제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사회는 항상 변화하며 이러한 사회 변화는 또 다른 사회 현상들을 유발시킨다. 특히나 우리 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매우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또 다른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각각의 지역 사회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그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진행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감소되어 오던 과거와 달리 농업인구는 2000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소규모 농가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통계청 2006). 또한 최근 귀농·귀촌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에는 2010년의 2.6배에 달한다고 한다(세계일보 2012.04.05).

이렇듯 오늘날의 도시와 농촌은 분명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지역의 구조 또한 10년 전, 5년 전과는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역 환경의 영향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서도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각 지역의 사회경제수준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 결과(Brooks-Gunn and Duncan et. al. 1993; Wilson 1987, 1996; Dornbush and Ritter et. al. 1991; Duncan 1994; Ainsworth 2002; Duncan and Connell et. al. 1997)에 비추어 볼 때, 농촌 및 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 양상 또한 또 다른 국면으로 변화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예상대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교육 정책과 교육 활동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 차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가 과거의 연구 결과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에서의 지역차를 최소화하고 또 각 지역 사회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가지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떠한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편 영역 및 학교급, 학년에서 나타나는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현상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성차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변인(Individual Variables)과 사회·문화적 변인(Sociocultural Variables)이 가장 대표적인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Kahle and Meece 1991). 이중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지원이나 인식과 같은 후천적·환경적인 차원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Carey 1955).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학업성적에서의 성차가 발생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자면, 거주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환경적인 차이는 그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차이가 도시와 농촌 두 지역에서 각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2.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분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3. 하위집단 학생의 비율은 각 거주지별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4.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학업성적에서의 성차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거주지별 학업성적

사회해체이론가인 쇼와 맥케이(Show and McKay 1942)가 지역 환경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제기한 이래, 1987년 윌슨(Wilson)에 의해 지역 빈곤수준이 지역 구성원들의 수입, 직업, 가정생활, 사회연결망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역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지역 환경은 그 지역 아동의 학업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 즉 어떤 한 아동의 낮은 학업성적과 비행 또는 문제 행동들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Brooks-Gunn and Duncan et. al. 1993; Leventhal and Brooks-Gunj 2000) 이러한 지역 환경의 영향력은 학업성적 영역에서도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Wilson 1987, 1996) 이것은 지역 환경 중에서도 특히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Dornbush and Ritter et. al. 1991; Brooks-Gunn and Duncan et. al. 1993; Duncan 1994; Ainsworth 200

2). 또한 지역의 경제, 학력수준 등은 아동의 학업성적이나 대학진학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갖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엔트위슬(Entwisle 1994)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던칸(Duncan) 등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은 부모의 관심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지역 아동의 인지 및 학업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한다(Duncan and Connell et. al. 1997). 다시 말해 지역 전체가 아동의 학업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이면 부모도 아동의 학업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이들의 학업 지도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은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대한 지역 환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Brooks-Genn and Duncan et. al. 1993; Duncan 1994; Chase-Lansdale and Gordon et al. 1997)에서도 이들 요인 간의 정적인 관계가 증명되었다. 즉 3세와 5-6세 유아 모두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의 아동이 더 높은 지능지수와 언어능력을 보임으로써 지역 환경과 아동 발달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의 연구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아동 발달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성적과 지역차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를 통해 두 요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두 지역 간의 학력 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촌에서 도시로 적지 않은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같은 도시 내에서는 학군 간의 성적 격차 현상으로 인해 좋은 학군으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학군 파동 현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밝혀낸 김병성(1981)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로 높다고 한다. 즉 중학교의 경우에 대도시 26.21점, 중소도시 25.11점으로 농촌 19.62점보다 높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대도시 31.67점, 중소도시 29.79점으로 농촌 20.30점보다 높다($p < 0.01$)고 하였다. 또한 지역의 규모가 큰 시 지역의 학교가 소규모의 군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학교보다 더 높은 학업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도시 지역 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적을 증명하는 연구도 있다. 즉 김용우(1993)의 연구에서는 군 지역 학교보다 시 지역 학교의 학업성적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고 충청북도 내 학력고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시 지역이 읍면 지역보다 학업성적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4).

지난 2003년에 실시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앞서 제시된 1980년대 분석 결과와 유사한 현상이 제시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농 격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즉 초등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의 평균점수가 중소 도시에 비해 0.04(과학) ~ 1.27점(국어), 고교생은 전 과목에서 중소도시 학생이 대도시 및 시골 지역에 비해 0.49(영어) ~ 1.95점(사회) 높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엔 중소도시는 사회와 과학이 그리고 대도시는 국어, 수학, 영어가 높았던 반면 시골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초등학생이 최고 4.85점(영어), 중학생이 3.87점(영어), 고등학생이 5.73점(과학) 떨어졌고, 중소도시보다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에서 각각 4.07점, 3.17점, 6.56점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또한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모든 과목에서 시골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시골 지역 고교생의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13.9%, 사회 14%, 수학 16.9%, 과학 23.9%, 영어 12.8% 등 모두 10% 대를 훨씬 초과했다고 한다(한국일보 2005.01.18).

2008년에 실시된 분석 결과에서도 도시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농촌 지역의 성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와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곳 중 11곳, 수학 교과와 14곳이 농촌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영어는 하위 20위 모두가 그리고 수학은 20곳 중 19곳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와 경우 하위 20위 가운데 17곳이, 수학은 16곳이 농촌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2009.02.16).

이러한 도농 간 학력 격차의 요인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그 견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1980년대에 진행된 연구(김병성 1983; 이용만·이용대 1985)에서는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의 학력 격차는 학교의 인적 배경과 더불어 학교의 규모나 시설, 조직과 같은 물리적 배경에 의해 야기된다고 분석한 반면, 1990년대의 연구(김용환 1995; 김용우 1993)에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도시보다 농촌이 좋아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학교가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교육풍토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해명(1998)은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대도시 지역 학생들은 가정환경이 좋고 과외의 기회가 많으므로 학교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데 비해서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는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과외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았다.

2000년대에 진행된 연구에는 박찬선, 주경식(2007)의 연구와 김미옥(2000)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를 경제적 환경에 그 요인을 두고 있다. 즉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역 차이가 결국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관여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계층 요인이 아동의 학업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나 사교육의 영향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점점 더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교사의 기대 수준과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열의, 방과 후 보충학습 여건, 학생 간 경쟁 등이 전반적으로 도시보다 낮은 것이 농촌 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적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일보 2005.01.18).

2.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학업성적에서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 또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차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특히 수학적 능력·공간능력 및 언어능력 분야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 수학적 능력 및 시공간 능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고, 언어능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공통된 분석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Maccoby and Jacklin 1974). 한편 수학 및 언어, 과학 등의 각 교과영역에서의 성차는 모두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대상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차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나(Benbow and Stanley 1983; Hyde and Fennema et. al. 1990) 이와 달리 남녀 간 성차가 없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Chipman and Brush et. al. 1985). 이중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차를 밝힌 연구 결과(Fennema 1974; Linn 1986; Linn and Hyde 1989)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고,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남학생 우위가 나타나며,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차이가 점차 심화된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고정화·도종훈 외 2008)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전체적으

로 계산과 같은 낮은 인지 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남학생은 추론이나 다단계 문제풀이와 같은 높은 인지단계의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우위를 보이며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고,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성별 편중성은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학교 급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높은 인지단계를 요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에 진행된 TIMSS 연구에 따르면,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국제 평균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이미경·김경희 외 2005).

언어능력에서의 성차 유무를 밝힌 연구 또한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와 성차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나뉜다. 먼저, 언어능력에서의 성차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자면, 할페른(Halpern 1997)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언어유창성, 외국어, 웅변, 읽기 및 쓰기 등에서 남아보다 더 우수한 수행능력을 보인 반면, 남아는 언어적 유추에서 여아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파인골드(Feingold 1988)는 8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여학생들은 문법과 철자법에서 남학생들을 능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언어능력에서 성차가 없음을 밝힌 연구로는 브로디와 바아네트 등(Brody and Barnett et. al 1996)의 연구 와 바이너와 로빈슨(Weiner and Robinson 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우수아의 경우 SAT 언어 부분의 상위수준 검사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하이드와 린(Hyde and Linn 1988)은 언어능력에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66%의 연구들이 성차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스비아텍과 루프코프스키 등(Swiatek and Lupkowski et. al. 2000)은 3

학년에서 6학년 우수아의 경우, 읽기에서 여아와 남아의 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수학과 언어 영역 외에도 과학 영역에 대한 성차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과학 분야에서의 성차를 밝힌 학자로는 할페른(Halpern)이 있다. 그는 자신의 연구(1997)를 통해 과학 지식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스비아텍과 루프코프스키 등(Swiatek and Lupkowski et. al. 2000)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과학적 추론 부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요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제기되고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과학 분야에서의 성차가 당연한 것으로 즉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회 문화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은 이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차를 줄이고 과학 교육이 양성 평등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염만숙 2003).

오늘날 양적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됨으로 인해 남녀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조건 속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에서의 남녀 간 성차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의 여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적이다(김종미 2001). 이에 단적으로 페네마(Fennema 1980)는 남녀 간의 교육적 균등의 핵심은 바로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나타나는 성별차를 좁히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학업성적에서의 이러한 성차 문제는 대체로 학교 학습 외적인 그 중에서도 환경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Williams 2007), 1992년에 진행된 미국여대생교육재단의 연구(AAUW 1992)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교실 내에서 남학생들보다 관심을 덜 받았으며, 이로 인해 수학 관련 과목을 선택

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현격히 낮다고 한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받게 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의도적인 교정을 필요로 한다고 이들 연구는 강조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별 유층 표집으로 선정되었다. 즉 연구대상이 된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된 후, 각 지역별로 대상 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여기에서는 행정구역을 지역 구분의 기준으로 하여 면 단위 이하 지역을 농촌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각각의 도 단위 지역들이 안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차이와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학교로 제한하였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27곳이 시 지역으로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이에 경기도 내에는 다양한 크기의 도시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농촌 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역이 도내에 구성되어 있다. 이에 거주지별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타도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경기도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대상 학교 수는 경기도 내에 위치한 36개교였으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010년도 기초학력진단평가의 대상이 된 3, 4, 5학년 학생들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은 3,388명이었으며 3학년은 1,146명, 4학년은 1,116명, 5학년은 1,12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중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모두 14개교(1,561명), 중소도시는 15개교(1,229명) 그리고 농촌 지역은 12개교(598명)였다. 아울러 연구대상

이 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교과별 학업성적이 하위 5%에 속하는 학생을 하위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하위집단 학생들은 다시 거주지별로 구분된 후, 각 지역의 전체 학생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학력저하 양상을 나타내는 학습부진아는 전체 학생 중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로 정의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하위 5%에 속하는 학생들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지역별 구성

| 학년 | 성별 | | 지역별 | | |
|-----|-------|-------|---------------|----------------|--------------|
| | 남 | 여 | 대도시 (14개교) | 중소도시 (15개교) | 농촌 (12개교) |
| 3학년 | 600 | 546 | 510 | 455 | 181 |
| 4학년 | 633 | 483 | 491 | 415 | 210 |
| 5학년 | 608 | 518 | 560 | 359 | 207 |
| 계 | 1,841 | 1,547 | 1,561 | 1,229 | 598 |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학업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많은 선행연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모의고사나 수능 점수(이해명 1998) 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정효선 2011)나 학교성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를 분석해 왔던 것과는 달리,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학업성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평가는 전국의 각급 학교 학생들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로 단순한 학력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각종 선발고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즉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알아보는 준거지향적 평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평가의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목표가 되며 이 기준에 비추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판단한다. 이에 각 개인의 지식, 기술, 성취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며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의 주요어가 되는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교과목의 기본 내용을 50% 이상 이해함으로써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이 없는 학력수준을 말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절반도 안 돼 사실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력 부진아'를 의미한다. 이에 거주지별 아동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많은 조사, 연구에서 기초학력평가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초학력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각 학년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교과는 3학년이 국어와 수학, 4학년과 5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검색과정을 거친 후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두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 차의 유의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학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세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분포를 백분율로 비교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가 점수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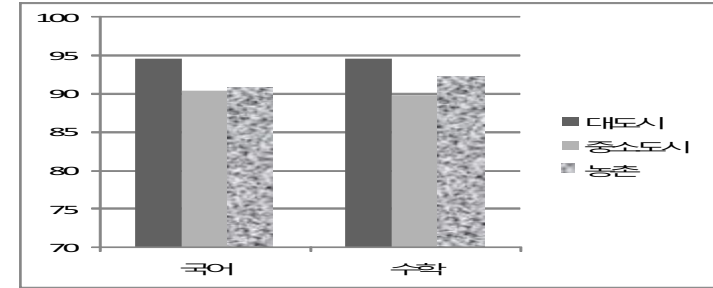
거주지별로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학년별, 교과목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모든 학년, 모든 교과목에서 세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학생의 경우, 거주지역의 차이가 $p<0.01$ 과 $p<0.001$ 수준에서 이들의 학업성적 결정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모든 학년,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의 학력 격차가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도시 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적게는 3.14점(초등학교 5학년 영어)에서부터 많게는 7.95점(초등학교 5학년 수학)까지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점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성적차가 20.83까지 벌어졌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보다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의 일부 교과를 제외한 3학년과 4학년, 5학년의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농촌-중소도시 순으로 성적이 높아 중소도시보다 농촌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중소도시 학생들의 성적이 농촌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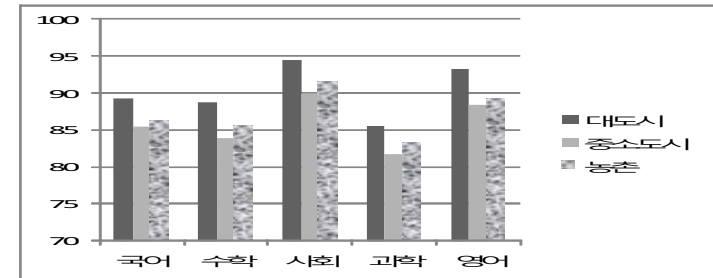
<표 2>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

| 학년 | 교과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촌 | | F |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초3 | 국어 | 94.52 | 8.00 | 90.45 | 12.85 | 90.76 | 10.28 | 13.96*** |
| | 수학 | 94.61 | 8.13 | 89.74 | 12.46 | 92.18 | 8.82 | 20.10*** |
| | 총점 | 187.19 | 20.42 | 181.85 | 21.51 | 182.94 | 16.91 | 8.84*** |
| 초4 | 국어 | 89.31 | 11.75 | 85.37 | 13.48 | 86.25 | 12.89 | 7.94*** |
| | 수학 | 88.83 | 12.77 | 83.87 | 14.33 | 85.49 | 13.54 | 10.46*** |
| | 사회 | 94.38 | 8.71 | 89.95 | 11.47 | 91.47 | 13.15 | 12.50*** |
| | 과학 | 85.59 | 12.69 | 81.67 | 14.04 | 83.25 | 14.10 | 6.55** |
| | 영어 | 93.27 | 9.72 | 88.37 | 13.11 | 89.14 | 11.67 | 14.34*** |
| | 총점 | 448.14 | 46.59 | 428.64 | 56.61 | 435.62 | 54.70 | 16.19*** |
| 초5 | 국어 | 86.10 | 11.02 | 83.02 | 13.01 | 82.10 | 12.20 | 7.85*** |
| | 수학 | 86.84 | 15.75 | 78.89 | 19.77 | 80.05 | 16.86 | 17.07*** |
| | 사회 | 91.63 | 10.81 | 88.53 | 13.34 | 88.22 | 10.98 | 6.85** |
| | 과학 | 81.32 | 12.89 | 76.17 | 16.25 | 74.42 | 14.43 | 15.63*** |
| | 영어 | 95.84 | 8.53 | 92.70 | 10.78 | 92.82 | 9.96 | 9.26*** |
| | 총점 | 437.92 | 50.03 | 417.09 | 65.05 | 417.62 | 54.61 | 19.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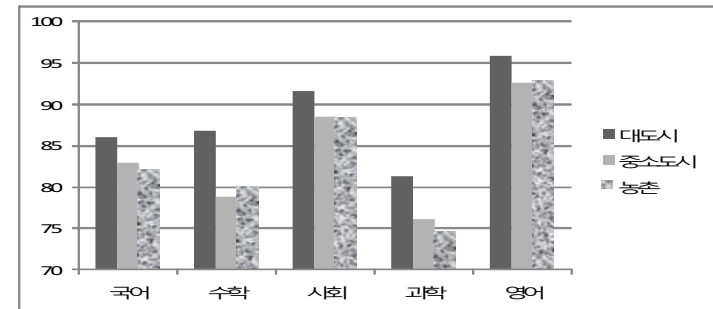
<그림 1> 초3 학생의 거주지별 평균 점수



<그림 2> 초4 학생의 거주지별 평균 점수



<그림 3> 초5 학생의 거주지별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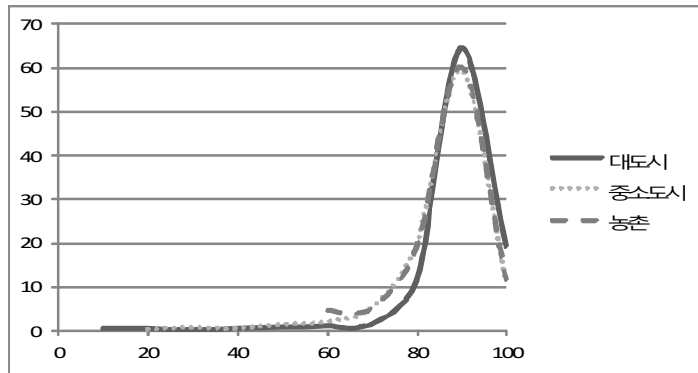


2. 거주지별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1)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점수대별 분포는 <표 3>과 <그림 4>와 같다. 즉 세 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점수대는 80점대로 대도시는 64.5%, 중소도시는 59.3% 그리고 농촌 지역은 60.2%로 세 지역 모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대도시 지역 학생들의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래프의 모양 또한 세 지역 모두 거의 유사하여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점수대별 분포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와 달리 농촌 지역은 50점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이 전혀 없어 기초학력이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는 학생을 농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초3 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그래프



<표 3> 초3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 점수대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촌 | |
|--------|-----|------|------|------|-----|------|
| | N | % | N | % | N | % |
| 0-10 | 2 | 0.4 | | | | |
| 11-20 | 2 | 0.4 | 1 | 0.2 | | |
| 21-30 | 1 | 0.2 | 3 | 0.6 | | |
| 31-40 | 3 | 0.6 | 2 | 0.4 | | |
| 41-50 | 4 | 0.8 | 6 | 1.3 | | |
| 51-60 | 5 | 1 | 9 | 1.9 | 8 | 4.4 |
| 61-70 | 8 | 1.5 | 24 | 5.2 | 9 | 4.9 |
| 71-80 | 58 | 11.3 | 89 | 19.5 | 34 | 18.7 |
| 81-90 | 329 | 64.5 | 270 | 59.3 | 109 | 60.2 |
| 91-100 | 98 | 19.2 | 51 | 11.2 | 21 | 11.6 |

2)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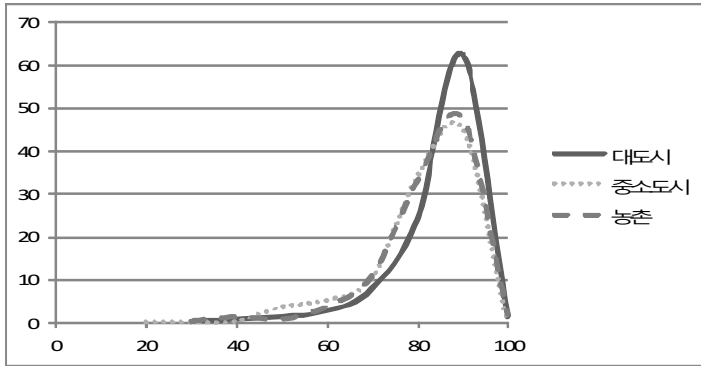
지역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점수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즉 <그림 5>에 나타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의 점수대별 분포 그래프를 비교하자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점수대는 3학년의 경우와 같이 80점대였다.

그런데 80점과 90점대 학생 분포를 지역별로 비교하자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간 분포 정도가 3학년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도시는 63.7%, 중소도시와 농촌은 각각 45.5%, 48.5%로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보다 18.2% 15.2%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4> 초4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 점수대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촌 | |
|--------|-----|------|------|------|-----|------|
| | N | % | N | % | N | % |
| 0-10 | | | | | | |
| 11-20 | | | 1 | 0.2 | | |
| 21-30 | 1 | 0.2 | 1 | 0.2 | 1 | 0.4 |
| 31-40 | 3 | 0.6 | 2 | 0.4 | 3 | 1.4 |
| 41-50 | 6 | 1.2 | 16 | 3.8 | 2 | 0.9 |
| 51-60 | 13 | 2.6 | 22 | 5.3 | 8 | 3.8 |
| 61-70 | 38 | 7.7 | 43 | 10.3 | 23 | 10.9 |
| 71-80 | 117 | 23.8 | 141 | 33.9 | 69 | 32.8 |
| 81-90 | 307 | 62.5 | 188 | 45.3 | 100 | 47.6 |
| 91-100 | 6 | 1.2 | 1 | 0.2 | 4 | 1.9 |

<그림 5> 초4 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그래프



3)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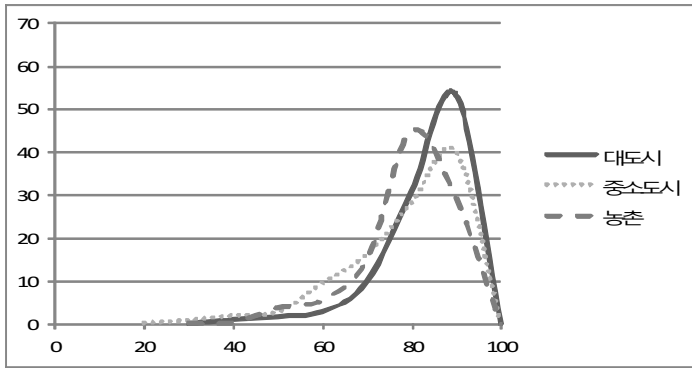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세 지역 간 점수대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세 지역의 그래프 모양이 비교적 일치하던 3, 4학년과는 달리 5학년에 이르러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80점대에 가장 많은 학생 분포를 보이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70점대에 약 50%의 학생들이 분포해 있고 또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보인 학생 수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보다는 -23.9% 중소도시보다는 -10.9% 적게 분포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 2>의 분석 결과 즉 초등학교 5학년 일부 교과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농촌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앞서는 현상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5> 초5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 점수대 | 대도시 | | 중소도시 | | 농촌 | |
|--------|-----|------|------|------|----|------|
| | N | % | N | % | N | % |
| 0-10 | | | | | | |
| 11-20 | | | 1 | 0.2 | | |
| 21-30 | 1 | 0.1 | 3 | 0.8 | 1 | 0.4 |
| 31-40 | 6 | 1 | 7 | 1.9 | 1 | 0.4 |
| 41-50 | 10 | 1.7 | 10 | 2.7 | 8 | 3.8 |
| 51-60 | 16 | 2.8 | 34 | 9.4 | 12 | 5.7 |
| 61-70 | 55 | 9.8 | 58 | 16.1 | 31 | 14.9 |
| 71-80 | 173 | 30.8 | 101 | 28.1 | 93 | 44.9 |
| 81-90 | 299 | 53.3 | 144 | 40.1 | 61 | 29.4 |
| 91-100 | | | 1 | 0.2 | | |

<그림 6> 초5 학생의 학업성적 점수대별 분포 그래프



3. 하위집단 학생들의 거주지별 비율

여기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 전체 학생 중 각 학년별, 교과별로 하위 5%에 속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위집단을 구성하였다. 그 후,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을 거주지별로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이 각 거주지별 전체 학생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적은 하위집단 학생들의 거주지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아래의 <표 6>을 살펴보자면, 전체 학생 중 하위 5%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소도시였으며(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 제외) 이들이 중소도시 지역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대도시와 농촌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위집단 학생 중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소도시 전체 학생의 최소 5.8% 최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과학과 영어 교과에서는 중소도시 지역 학생 중 무려 7.7%의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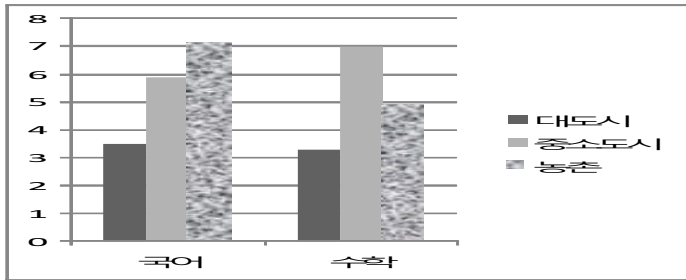
들이 하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학생 중 하위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도시로 모든 학년, 모든 교과에서 2.4-4.2%의 학생만이 하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4학년 영어 교과에서는 하위집단 학생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2.4% 밖에 되지 않아 영어 교과에 대한 대도시 학생들의 유리한 입지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농촌 학생들의 경우, 4, 5학년 수학교과에서 하위집단에 포함된 비율은 각각 약4%대에 그쳐 대도시 지역과 근소한 차를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수학교과에 대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우세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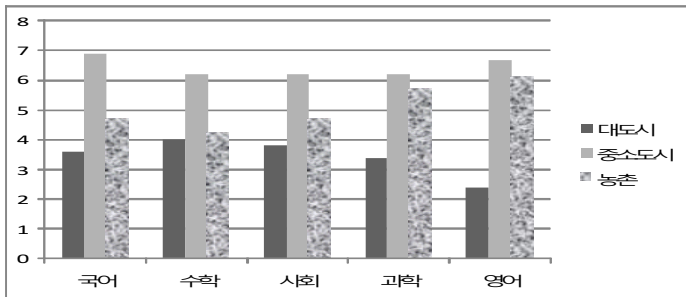
<표 6> 하위집단학생의 거주지별 비율

| 그룹 | 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 영어 | 총점 |
|----|----------------|--------------|--------------|--------------|--------------|--------------|
| 초3 | 대도시 (3.5%) | 17 (3.3%) | | | | 19 (3.7%) |
| | 중소도시 (5.9%) | 32 (7.0%) | | | | 28 (6.1%) |
| | 농촌 (7.1%) | 9 (4.9%) | | | | 10 (5.5%) |
| 초4 | 대도시 (3.6%) | 20 (4.0%) | 19 (3.8%) | 17 (3.4%) | 12 (2.4%) | 16 (3.2%) |
| | 중소도시 (6.9%) | 26 (6.2%) | 26 (6.2%) | 26 (6.2%) | 28 (6.7%) | 30 (7.2%) |
| | 농촌 (4.7%) | 9 (4.2%) | 10 (4.7%) | 12 (5.7%) | 13 (6.1%) | 11 (5.2%) |
| 초5 | 대도시 (3.0%) | 21 (3.7%) | 24 (4.2%) | 14 (2.5%) | 17 (3.0%) | 20 (3.5%) |
| | 중소도시 (7.2%) | 24 (6.6%) | 21 (5.8%) | 28 (7.7%) | 28 (7.7%) | 26 (7.2%) |
| | 농촌 (5.7%) | 9 (4.3%) | 10 (4.8%) | 15 (7.2%) | 11 (5.3%) | 10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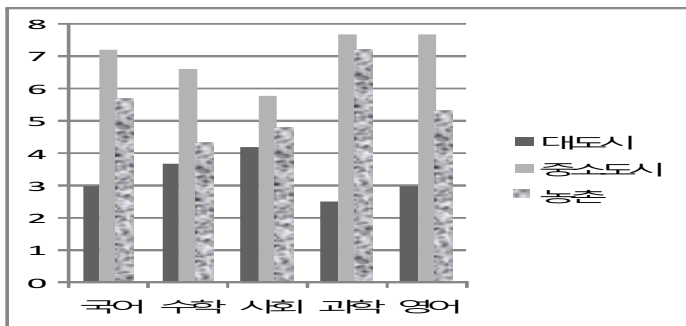
<그림 7> 초3 하위집단 학생의 거주지별 분포



<그림 8> 초4 하위집단 학생의 거주지별 분포



<그림 9> 초5 하위집단 학생의 거주지별 분포



4. 도시와 농촌 지역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 있어 성차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각기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도시 지역은 대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학업성적에서의 성차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도시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총점에서 성차가 나타났고 4학년 단계에서는 영어 교과에서만 도시 학생들에게서 성차가 나타났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서는 3, 4학년 단계에서 모두 성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5학년에 이르러 일부 교과를 제외한 많은 영역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5학년의 경우, 도시 지역에서는 국어 교과에서만 여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국어, 사회, 영어, 총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성차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난 성차는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 지역 3학년의 수학교과와 농촌 지역 5학년의 사회 교과에서도 여학생의 우위가 나타나기는 하나 초등학교 3, 4, 5학년 단계에서 모두 언어영역 교과를 중심으로 여학생 우위의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어능력에서 여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즉 문자나 단어 확인, 받아쓰기 및 독해 등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나글리에리와 로얀(Naglieri and Rojahn 2000)의 연구와 전반적인 언어 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맥코비와 잭클린(Maccoby and Jackline 1974)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자면, 초

등학교 3~5학년 언어영역 교과에서 나타나는 여학생의 우위 현상은 남녀 학생들의 성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와 도시와 농촌 두 지역의 학업성적에서의 성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3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초학력진단평가 자료 중 경기도 내 위치한 36개교 3,388명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차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5학년의 일부 교과를 제외한 3, 4, 5 학년 대부분의 교과에서 농촌 지역의 성적이 중소도시보다 높아 대도시-농촌-중소도시 순으로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보다 열세한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하위집단 학생들의 거주지별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학생 중 하위 5%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소도시였으며(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 제외) 이들이 중소도시 지역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 또한 대도시와 농촌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학력 격차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실제로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같은 시도를 통해 교육 당국이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교육기회의 차별과 빈부 격차의 세습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이데일리 2008.03.03). 이에 학업성적에 대한 지역 환경

<표 7> 도시와 농촌 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의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 지역 | 교과 | 남 | | 여 | | t | |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
| 3학년 | 도시 | 국어 | 93.48 | 9.02 | 95.57 | 6.69 | -2.33* | |
| | | 수학 | 93.35 | 9.35 | 95.87 | 6.47 | -2.76** | |
| | | 총점 | 185.15 | 16.73 | 188.59 | 14.53 | -2.44* | |
| | 농촌 | 국어 | 90.19 | 10.45 | 91.37 | 10.12 | -.77 | |
| | | 수학 | 92.20 | 7.89 | 92.15 | 9.79 | .03 | |
| | | 총점 | 182.40 | 16.49 | 183.53 | 17.44 | -.45 | |
| 4학년 | 도시 | 국어 | 88.03 | 12.86 | 90.80 | 10.15 | -1.90 | |
| | | 수학 | 88.35 | 13.97 | 89.39 | 11.23 | -.65 | |
| | | 사회 | 93.49 | 9.74 | 95.41 | 7.23 | -1.78 | |
| | | 과학 | 85.26 | 12.81 | 85.97 | 12.59 | -.45 | |
| | | 영어 | 91.37 | 11.54 | 95.50 | 6.39 | -3.48** | |
| | | 총점 | 446.51 | 53.25 | 457.09 | 40.75 | -1.81 | |
| | | 농촌 | 국어 | 85.04 | 13.39 | 87.63 | 12.23 | -1.45 |
| | 수학 | | 84.86 | 13.31 | 86.12 | 13.88 | -.66 | |
| | 사회 | | 90.57 | 13.27 | 92.46 | 13.03 | -1.03 | |
| | 과학 | | 82.45 | 15.52 | 84.03 | 12.17 | -.80 | |
| | 영어 | | 87.87 | 12.50 | 90.58 | 10.51 | -1.70 | |
| | 총점 | | 430.82 | 56.23 | 440.84 | 52.60 | -1.32 | |
| | 5학년 | | 도시 | 국어 | 84.47 | 11.22 | 87.89 | 10.55 |
| | | 수학 | | 87.02 | 16.28 | 86.63 | 15.19 | .21 |
| 사회 | | 90.80 | | 12.36 | 92.54 | 8.74 | -1.37 | |
| 과학 | | 80.91 | | 13.09 | 81.77 | 12.70 | -.56 | |
| 영어 | | 95.35 | | 8.85 | 96.37 | 8.16 | -1.02 | |
| 총점 | | 438.56 | | 53.31 | 445.23 | 45.85 | -1.13 | |
| 농촌 | | 국어 | 78.51 | 14.03 | 84.97 | 9.66 | -3.91** | |
| | | 수학 | 78.86 | 18.11 | 81.00 | 15.80 | -.89 | |
| | | 사회 | 86.07 | 12.88 | 89.94 | 8.87 | -2.55* | |
| | | 과학 | 72.43 | 16.11 | 76.00 | 12.79 | -1.77 | |
| | | 영어 | 90.75 | 10.95 | 94.47 | 8.79 | -2.71** | |
| | | 총점 | 406.64 | 61.45 | 426.41 | 46.89 | -2.54* | |

의 영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특정 지역 학생의 낮은 학업성적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명(1998)은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과외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먼저 지역의 학교환경이 개선되고 과외의 기회가 지방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 방송이나 지역의 문화센터가 과외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환경이 열악한 대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가정, 학교, 과외 변인이 학업성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으로 이러한 변인 차이를 없애고 과외 수강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에 대한 분석 결과 중 특히 주의를 끄는 부분은 바로 5학년 일부 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에서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로 높다고 한 과거의 분석 결과들과는 사뭇 다른 현상으로 이러한 변화 양상은 중소도시와 농촌 이 두 지역의 특성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지역의 경제, 학력수준 등이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으며 이러한 지역 특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이나 대학진학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윌슨(Wilson 1987)의 연구에 근거하여, 농촌의 변화되는 지역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변화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10년에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농가 형태는 과거와 달리 전업농가는 감소한 반면 겸업농가는 증가함으로 인해 이것이 농촌 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경기규모별 농가 수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농촌 지역의 소득수준 향상을 읽을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경기 규모 1ha 미만을 보유한 농가는 감소한 반면 3ha 이상 보유한 농가는 점차 증가함으로써 전국 농가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통계청 2011). 이러한 변화들은 농촌 지역의 농가가 농업·농촌 활동을 통해 많은 소

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농촌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농촌 지역의 이러한 소득 개선은 과거와 달리 최근 귀농·귀촌 인구를 급격히 늘어나도록 하여 2011년에는 2010년의 2.6배인 1만503가구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 농가 평균소득은 2000년보다 7% 증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수가 2000년에 비해 5%나 증가했다고 한다(세계일보 2012.04.05). 농촌 지역의 이러한 소득 수준 향상은 자녀 교육문제에 대한 농촌 지역 부모의 관심도를 높여주었고 아울러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도 높임으로써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과거보다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간 학업성적 차에서 가장 큰 점수 차를 나타내 보인 교과는 5학년 수학 교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7.95의 점수 차를, 대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6.79의 점수 차를 보이며 타 교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차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교과와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르면 수학교과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추상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는 단계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사교육의 비율과 같은 기타의 사회·환경적 조건들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특히 수학교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현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둘째, 학업성적의 점수대별 분포를 거주지별로 비교한 결과,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점수대별 분포도의 변화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평균점수가 50점대 이하에 속하는 학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를 나타내는 학생 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에 이르러서는 80점 이상의 점수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학생 분포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세 지역 간 점수대별 분포에서 별다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4학년부터는 80점대 이상의 점수 분포에 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간 차이가 3학년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5학년에 이르러서는 세 지역의 그래프 모양조차 달라지면서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 수가 농촌의 경우 타 지역보다 매우 적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대도시보다는 23% 이상 적게 그리고 중소도시보다는 11% 정도 적게 분포하였다. 이것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농촌 지역 학생들의 점수대별 분포는 타 지역에 비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표 2>에 제시된 분석 결과 즉 5학년의 일부 교과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낮게 나타났던 분석 결과와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셋째, 학업성적에 있어 성차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학년에 따라 그 양상도 변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성차가 나타나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서 다수의 교과를 중심으로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남녀 간 학업성적의 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난 이러한 성차는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적이 더 높다는 공통된 현상을 나타내 보였다. 다시 말해, 도시 지역에서는 여아의 우월성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에서는 영어 교과에서 그리고 5학년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제외한 전 교과에서 여아의 우세한 학업성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학년과 5학년 단계에서 성차가 나타난 교과는 주로 언어영역을 중심으로 한 인문사회 관련 교과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은 남녀의 성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업성적에 대한 성차 현상이 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

상을 나타내는지의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 단서를 찾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차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의 성과 학업성적 간의 관련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성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흐르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는 지역적 특성과 연관하여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간의 학업성적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원인에 기인되기보다(Benhow and Stanley 1983)는 후천적·환경적 차원(Carey 1955) 즉 특정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있다(염만숙 2003). 따라서 학생들의 성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에 따른 사고양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나 수행결과에 대한 강화를 학생의 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공하는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거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업성적에서의 성차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나 학업성적에서의 도농 격차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를 앞지르는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 지역사회 환경은 분명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오늘날 전개되는 농촌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학업성적 양상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역 사회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성적이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서열화 되고 나아가 이것으로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농촌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학력 격차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력 격차는 사교육의 역할이 커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농촌 지역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사교육 억제 정책과 같은 단순 해법을 통해 마련되기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을 통해보다 근본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에 먼저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의 역할을 제한해 나가면서 두 지역 간의 교육환경 및 학업성적의 격차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지역보다 낮은 중소도시 학생의 학업성적: 도시 농촌 간 학력 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농촌 지역 학습 도우미 방 운영, 농촌 지역의 지속형 공립 고교 지정, 농어촌 특별 전형 실시,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실시’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보다 오히려 중소도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더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또한 매우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농촌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도시와의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에 제시된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해 다양한 교육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거주지별 학업성적의 차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업성적에 대한 성차 현상이 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단서와 명확한 근거 자료도 앞으로 진행될 후속 연구를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고정화·도종훈·송미영, 2008, “수학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성별 차이분석”, 『수학교육학연구』, 18권 2호, pp. 179-200.
- 김소연, 2003, “초등생 기초학력 미달 농촌이 도시 2배 많아”, 『한겨레』 (4월 22일).
- 김소연·정민영, 2009, “강남초6 영어 ‘보통이상’ 95%…서울전체 학력은 ‘바닥’”, 『한겨레』 (2월 16일).
- 김미옥, 2000, “주거환경에 따른 청소년 형태의 특성: 인천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병성, 1981, 『교육격차의 관련 요인』, 한국교육개발원.
- , 1983, 『도농 학교의 사회적 체제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우, 1993, 『농어촌 소규모 중등학교 경영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용환, 1995,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종미, 2001,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도에서의 성차 분석”,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43권, pp. 39-55.
- 김중희, 1988, “농촌 아동의 도시 전입학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 -경북에서 대구시 전입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박찬선·주경식, 2007,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분포 패턴 연구: 안양시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5권 1호, pp. 65-76.
- 양미영, 2008, “교육기회 차별..빈부격차 세습 ‘악순환’”, 『이데일리』 (3월 3일).

염만숙, 2003, “과학창의력에 나타나는 성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이미경·김경희·박선화·조지민·시기자·최성연, 2005,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 수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5-40.

이용만·이용대, 1985, 『농가의 교육비 투자와 농촌 교육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학동, 2012, “농촌·농업엔 새로운 희망이 있다”, 『세계일보』 (4월 5일).

이해명, 1998, “지역차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신문화연구』, 21권 3호, pp. 109-136.

정효선, 2011, “성남시 학업성취도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 지역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1984, 『학력고사 분석 보고서』, 충북교육연구원.

통계청, 2011, 『2010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_____, 2006, 『2005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Ainsworth, J. W., 2002, “Why Does It Take a Village? The Medi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 *Social Forces*, Vol. 81, No. 1, pp. 117-52.

AAUW, 1992, *The AAUW Report: How Schools Shortchange Girls*. Washington, DC: Author.

Benhow, C. P and Julian C. Stanley, 1983, “Sex Differences in Mathematical Reasoning Ability: More Facts.” *Science*, Vol. 222, No. 4627, pp. 1029-1031.

Brody, L. E., Barnett, L. B., and C. J. Mills, 1994, “Gender Differences among Talented Adolescents: Research Studies by SMPY and CTY at Johns Hopkins”. in Heller, Kurt A and Ernst A. Hany, eds.,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Third European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uncil for High Ability (pp. 204-210). Geottingen, Germany: Hogrefe and Huber.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K., and Naomi Sealand, 1993, “Do Neighbo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No. 2. pp. 353-395.

Carey, S. W., 1955, “The Orocline Concept in Geotectonics”, Part 1.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Tasmania*, Vol. 89, pp. 255-288.

Chase-Lansdale, P., Gordon, R. A., Brooks-Gunn, J., and Pamela K. Klebanov, 1997, “Neighborhood and Family Influences on the Intellectual and Behavioral Competence of Preschool and Early School-age Children”, in Brooks-Gunn, J., Duncan, G. J. and J. L. Aber, eds.,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hipman, S. F., Brush, L. R., and Donna M. Wilson, 1985, *Women and mathematics: Balancing the Eq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Dornbush, S. M., Ritter, L. P., and Laurence Steinberg, 1991, “Community Influences on the Relation of Family Status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Non-Hispanic Whit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Vol. 99, No. 4, pp. 543-567.

Duncan, G. J., 1994, “Families and Neighbors as Sources of Disadvantage in the Schooling Decisions of White and Black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Vol.

- 103, No. 1, pp. 20-53.
- Duncan, G. J., Connell, J. P., and Pamela K. Klebanov, 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Estimating Causal Effects of Neighborhoods and Family Conditions on Individual Development", in Brooks-Gunn, J., Duncan, G.-J. and J. L. Aber, eds.,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ntwisle, D. R., Alexander, K. L., and Linda S. O. 1994, "The Gender Gap in Math: Its Possible Origins in Neighborhood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No. 6, pp. 822-838.
- Feingold, A., 1988, "Cognitive Gender Differences are Disappear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43, No. 2, pp. 95-103.
- Fennema, E., 1974, "Mathematics Learning and the Sexes: A Review,"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Vol. 5, No. 3, pp. 126-139.
- , 1980, Sex-related Differences in Mathematics Achievement: Where and why. in Fox, Lynn H., Brody, L. and D. Tobin eds., *Women and the Mathematical Mystiqu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lpern, D. F., 1997, "Sex Differences in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No. 10, pp. 1091-1102.
- Hyde, J. S., Fennema, E., and Susan J. Lamon, 1990, "Gender Differences in Mathematics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No. 2, pp. 139-155.
- Hyde, J. S. and Marcia. C. Linn, 1988, "Gender Differences in Verbal Abi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4, No. 1, pp. 53-69.
- Kahle, J. B., and Judith M., 1991, "Research on Gender Issues in the Classroom," in Gabel, Dorothy L. ed., *Handbook of Research o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Leventhal, T. and Jeanne Brooks-Gunn,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6, No. 2, 309-337.
- Maccoby, E. E., and Carol N. J.,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wiatek, M. A., Lupkowski-Shoplik, A., and Cathleen C. O'Donoghue, 2000, "Gender Differences in Explore Scores of Gifted Third through Sixth Gr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2, No. 4, pp. 718-723.
- Weiner, N. C., and Sharon E. R., 1986, "Cognitive Abilities,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Math Achievement of Gif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Vol. 30, No.2, pp. 83-87.
- Williams, B. T., 2007, "Girl Power in a Digital World: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Gender, Literacy and Technology,"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Vol. 50, No. 4, pp. 300-307.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1996, *When Work Disappears: The World of the New Urban Poor*, New York: Knopf

Academic Achievement by Residential Area and Gender Differences between the Achievement of Urban and R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Soon-j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by residential area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hree areas (big city, small city, and rural area). Through the results, it was proved that academic achievement is closely related to residential area and gender differences; academic achievement i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area.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hen the difference of academic achievement by residential area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residential area affect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3rd, 4th, 5th grade students' academic scores were the highest in big cities, whereas academic scores in the rural areas were higher than those in small cities for most of 3rd, 4th, 5th grade subjects, with an exception for some of the 5th grade subjects. Hence, students' scores were high in the order of big city - small city - rural area. Second, when comparing distributions by the score level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distribution by the score level also showed regional differences. Third, gender differenc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showed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regions, and the patterns changed depending on the grade. In the 3rd grade,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focused on urban areas.

However, in the 5th,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many of the subjects focused on rural areas. Thus, the results showed that gender differences moved from urban to rural areas as students entered upper grades.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residential area, gender differences, big city, small city, urban areas, rural areas, distribution